	보도참고자료	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	
배포일시	2018. 4. 12.(목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
담당과장	박정성 과장(044-203-5620)	담 당 자	이은희 서기관(044-203-5624)

산업통상자원부, 미·중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

- 미·중 수출 및 중국 현지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4. 12.(목) **미·중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**를 개최하고, 301조 조치 등 미국의 무역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가 **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**하고 **대응방안을 논의**했다.

< 미·중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 개요 >

▷ **일시 및 장소**: '18. 4. 12 (목) 14:00-15:30, 무역보험공사 회의실

▷ **참석자** 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(주재), 업종별 협·단체 부회장, KOTRA·무역협회·산업연구원 본부장 등

▷ **안건** : 미중 무역분쟁 동향, 산업별 영향분석 결과, 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등

□ 미국 정부는 3. 22.(현지 시간)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**무역법 301조**를 근거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**25% 관세 부과**, 중국 기업의 **투자 제한**, 지재권 관련 세계무역기구(WTO) **제소** 등을 지시하는 각서(메모랜덤)에 서명하고,

○ 4.3(현지시간) 전자기기, 기계, 자동차, 항공, 철강재 등 **1,333개 대중(對中) 관세 부과 목록을** 발표했다.

○ 이에 대응하여 4.4일 중국 정부는 대두, 자동차, 항공기 등 500억불 규모의 **미국산 106개 제품에 25% 관세**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

□ 정부는 그간 미·중 무역분쟁 동향을 예의주시하였으며, 미국과 중국의 조치가 **우리 기업의 대중, 대미 수출 및 투자기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원, 업계 등과 면밀히 검토**해왔다.

□ 오늘 회의에서 **산업연구원**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에 따른 **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영향을 '세계산업연관표(WIOD)'**를 사용하여 정량 분석한 결과,

○ 미·중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미·중 상호간 수출이 감소해 **우리나라의 대중(對中) 수출은 1.1억 달러 감소**하고, **대미(對美) 수출은 0.9억 달러 감소**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**영향이 미미**하다고 말했다.

* '17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: 1,421억불, 대미 수출 : 686억불

【 미·중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(생산) 감소효과 (단위 : 억불, 17년 대비) 】

미 ⇨ 중 (301조 관세 부과)		**중 ⇨ 미** (보복관세 부과)	
한→중 수출	△1.1 (△0.07%)	한→미 수출	△0.9 (△0.13%)
한국 산업생산	△2.5	한국 산업생산	△2.4

※ (파급경로) ① 미·중 상호 관세 부과* 현실화 → ② 미·중 상호간 수출 감소 → ③ 한국의 중, 미 중간재 수출 감소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 감소

* (미→중) 중국산 1,333개 품목에 25% 관세 부과
* (중→미) 미국산 128개 품목에 15~25% 관세, 106개 품목에 25% 관세 부과

※ 중·미 시장에서 제재 품목의 미국·중국산 제품 수입 감소에 따른 한국 제품으로의 무역전환 효과는 분석한계상 미포함

○ 산업별로 대중(對中) **수출**은 **화학, 정보통신기술(ICT)**, 대미(對美) **수출**은 **자동차·부품, 정보통신기술(ICT)** 업종에 **제한적 영향**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.

□ 업종별 협·단체도 **우리 기업의 미국·중국 수출과 중국 현지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**일 것으로 평가했다.

□ 먼저 대중(對中) 수출의 경우, 주력 수출업종인 **반도체·디스플레이**는 핸드폰, 컴퓨터(PC) 본체 등 **주요 수요품목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**되어 중국 수출에 미치는 **영향이 미미**한 것으로 내다봤다.

○ 자동차, 기계, 철강 등도 대부분 **중국 내수용**으로 수출되거나 **미국으로 재수출**되는 **물량이 없어**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.

○ **전자기기**는 프린터, 복사기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**일부 부품의 수출 감소 영향**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이며,

○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 제재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의 일부 반사 이익도 예상된다고 하였다.

□ 대미(對美) **수출**의 경우에도 자동차,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업종은 **미국 내수 중심의 수출 구조**로 **미-중간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**할 것으로 예상했다.

□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경우도 **중국내 내수 기반** 생산으로 **직접적 영향이 제한적**일 것으로 전망했다.

□ 강성천 차관보는 최근 미·중 정상 모두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나, 무역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바, **관계부처, 업계 등과 긴밀히 모니터링**하고 필요시 민관 합동 **대응방안을 마련**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이어서, 산업통상자원부는 4. 12.(목) 오후 강성천 차관보 주재로 **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**를 개최해 기획재정부, 외교부,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'**미중 무역분쟁 동향 및 대응방향**'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이은희 서기관(☎044-203-56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